

# 제45차 ACPAC회의 결과보고

〈기 획 부〉

1974년 7월에 창설되어 회원국간 친목도모, 수출관계협약, 각종 자료 및 각종정보교환을 목적으로 그동안 아시아 지역내의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해온 ACPAC회의가 올해로 45회째를 맞아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열렸다.

제45차 ACPAC(Asian Cement Producers' Amity Club)회의가 지난 11월 14~15일 양일간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7개국 121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는 회원 각국의 시멘트 수급동향과 업계동향에 대한 각국대표자의 설명이 있었고 그에 따른 질의 응답으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차기회의는 인도네시아에서 5월중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회의는 년1회로 축소개최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리고 회원국간의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위해 각국별 DIRECTORY를 제작하기로 합의 하였다 금번 ACPAC본회의에서 발표한 각국의 시멘트 수급동향 및 업계동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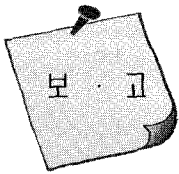
## 1. ACPAC 회원국의 동향 종합

아시아지역의 높은 경제성장과 SOC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회원국들의 시멘트수요가 한국, 일본, 대만 이외의 국가들은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과 대만을 제외한 회원국들은 96년에 1,300만톤 증설에 이어 97년에도 2,400만톤의 증설을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이계획대로 증설이 진행 된다면 금세기 말까지는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국가에서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도 예상된다.



## 2. ACPAC 회원국별 동향

### 대 만

#### 일 본

96년 9,700만톤의 시멘트 생산에 국내소비는 8,200만톤으로 95년 7,960만톤 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해 초과공급분 1,250만톤을 수출하였으며 97년 수요도 8,100만톤으로 전망되 초과공급분 1,200만톤을 수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올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54만톤 규모의 HIKONE 공장이 폐쇄되었으며 국내수요의 정체로 합리화 정책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96년 시멘트 생산량은 2,160만톤에 국내수요가 2,242만톤으로 수입을 통한 수급균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수요가 94년부터 약간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국내소비도 2,200만톤~2,300만톤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물량도 크링카가 96년 66만톤에서 97년 51만톤으로 약15만톤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시멘트는 96년 259만톤에서 97년 199만톤으로 약 60만톤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서부공장지역의 석회석 고갈 및 민원등의 이유로 채굴권이 시효만료 되는 1997년경 부터는 석회석을

〈표-1〉 ACPAC 회원국의 '96 시멘트 수급실적 및 '97 전망

(단위 : 천톤)

		년도	일 본	대 만	태 국	필 리 핀	인 도 네 시 아	말 레 이 시 아
KILN생산능력	96		97,032	24,365	33,746	11,780	24,955	10,600
	97		97,032	24,798	41,046	15,340	30,045	12,400
크링카생산	96		90,500	20,600	33,720	9,700	22,812	9,500
	97		89,100	20,966	41,046	13,039	28,291	11,200
시멘트생산	96		97,900	21,600	42,248	12,084	25,045	12,700
	97		96,400	21,984	49,800	14,995	29,470	14,500
수요	내수	96	81,400	19,825	37,890	12,150	24,701	12,700
		97	80,400	21,005	41,990	14,560		14,500
	수출	96	12,500	1,484	3,400		323	
		97	12,000	1,000	4,500	300		
	계	96	93,900	21,390	41,290	12,150	25,042	12,700
		97	92,400	22,005	46,490	14,860		14,500
수입	96		600	3,245	228	1,900	2,286	4,100
	97		600	2,500		700		4,300
국내소비	96		82,000	22,415	37,890	12,750	25,866	14,100
	97		81,000	23,000	41,990	14,660	28,970	16,200

주) 96년중 10~12월은 추정치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석회석 자원이 풍부한 동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하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96년 시멘트 소비량은 2,578만톤으로 전년대비 6.9%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정부정책에 따른 건설부문의 투자증대로 97년 수요도 2,897만톤에 이르러 12%의 높은 증가가 예상되어 당분간 시멘트 수입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내수의 증가에 따라 수급균형을 위해 증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96년에 250만톤의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97년에도 650여만톤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등 계속해서 대규모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98년 이후에는 시멘트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 말레이시아

8%대의 GDP성장률과 약 9.0%의 건설부문의 성장률, 주택개발사업의 추진, 그리고 계속되는 SOC확충등으로 96년 시멘트 내수는 전년보다 20.0%증가한 1,410만톤으로 부족분은 증설 및 수입으로 대처하고 있다.

수년간 큰 폭의 수요증가에 따라 96년에 410만톤(크링카 260만톤, 시멘트150만톤)을 수입했으며 97년에도 400여만톤(크링카포함)의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설계획으로는 96년 240만톤에 이어 97~98년중 480만톤의 추가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내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공급부족의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태국

건설부문의 높은 성장(10%)에 힘입어 96년 국내소비가 3,789만톤에 이르러 전년대비 10%의 높은 시멘트 소비증가율을 나타냈으며 97년 국내 소비도 4,199만톤으로 전망되어 10.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러한 높은 소비의 증가율은 인프라 개발계획 확대에 따른 건설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기인한다.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96년 250만톤 증설에 이어 97년, 98년에도 200만톤 이상씩의 증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증설후의 잉여물량을 고려하여 96년 340만톤, 97년 450만톤의 시멘트를 수출할 예정이며 머지않아 수출국체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SOC투자, 주택건설, 신산업지구개발등으로 96년 건설부문의 높은 성장률(18.3%)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멘트소비는 96년 생산능력 1,178만톤을 능가하는 1,275만톤으로 1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97년도에도 시멘트 수요가 1,466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 15%대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현재 부족한 물량은 수입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마닐라 항구의 체선문제로 벨크시멘트 수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어 시급히 항만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며 앞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96년 130만톤증설에 이어 97년 350만톤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증설이 완료되는 98년 부터는 수출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